

18. 학교 당직 실무원에서 발생한 간내담관암

성별	남성	나이	만 63세	직종	학교 당직 실무원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망 ○○○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약 5년 동안 □사업장에서 가스라이터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1980년부터 약 10년간 인쇄업에, 이후 11년간 인쇄 영업에 종사하였다. 이후 근로자는 2006년 11월부터 초등학교에서 당직 실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12월 대학병원에 폐쇄성 황달을 주소로 내원하여 간내담관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업무 중 당직실 천장의 석면, CCTV의 전자파, 쓰레기장 관리 중 바이러스, 학교 옆 공장의 화학약품 등에 노출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하여 2021년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6월 3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망 ○○○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약 5년 동안 □사업장에서 가스라이터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이후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약 20년 간 인쇄업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유가족(동생) 증언에 따르면 근로자는 인쇄소에 취업하여 약 7-8년 근무 후, 사업을 인수하여 직원 3-4명을 고용하여 1-2년간 자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잘되지 않아 근로자는 그 후로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인쇄물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인쇄작업에 종사한 기간은 자영업 1-2년을 포함하여 최대 약 10년으로 추정된다. 이후 근로자는 2006년 11월부터 △사업장 소속으로 초등학교에서 당직 실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9월에 해당 초등학교로 소속이 변경되어 같은 업무에 계속 종사하던 중 2020년 12월에 상병 진단되었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 망 ○○○은 2006년 11월부터 초등학교에서 당직 실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12월 3일에 10월부터 지속된 황달, 진한 소변, 약 1달 지속된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하여 대학병원에서 2020년 12월 4일에 복부와 골반 컴퓨터단층촬영 상 간문부 담관암(hilar cholangiocarcinoma, likely B-IV pattern)을 진단받았다. 2020년 12월 10일에 자기공명 담췌관조영술 (magnetic resonance cholangiography, MRCP)을 받았고, 간 S4 영역에 4cm 크기의 간 내 덩이를 형성하는 담관암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2020년 12월 11일에 초음파 가이드 하에 간 침생검을 하였고, 저분화형 선암종(liver, needle biopsy, adenocarcinoma, poorly differentiated)이 확인되었다. 유족(남동생)에 따르면 근로자는 2021년 10월 15일에 사망하였다.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최근 10년간 하루에 1갑, 1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고, 음주는 최근 10년 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하였다. 근로자가 대학병원에서 2020년 12월 4일에 시행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Anti-HAV total(+), Anti-HAV IgM(-), HBsAg(-), HBsAb(+), Anti-HCV Ab(-), anti HIV(-) & HIV Ag(-)로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근로자가 국립암센터에서 2021년 1월 4일에 시행한 검사결과에서 HBsAg(-), HBsAb(+), Anti-HBc(+), Anti-HCV(-), Anti-HIV(-)로 Anti-HBc(+) 결과로 인해 과거에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일반건강검진 결과지에서는 간질환이 의심되는 검사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B형 간염 또는 그 외 유질환 소견도 확인되지 않았다. 근로자는 간내담관암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망 ○○○(남, 1957년생)은 만 63세가 되던 2020년 12월에 간내담관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약 5년 동안 □사업장에서 가스라이터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1980년부터 약 10년간 인쇄업에, 11년간 인쇄물 영업에 종사하였다. 이후 근로자는 2006년 11월부터 △사업장 소속으로 초등학교에서 당직 실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9월에 초등학교로 소속이 변경되어 같은 업무에 계속 종사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1,2-dichloropropane과 dichloromethane 등이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인쇄업에 종사한 기간 중 약 10년(자영업 약 1-2년 포함) 동안 1,2-dichloropropane과 dichloromethane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나, 벤젠을 포함한 여러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학교에서 상병 발병까지 약 14년 2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근로자가 노출된 직업적 요인과 담관암 발생 간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